

## 2021학년도 1학기 『유럽 도시 문화공간으로 읽는 역사』 강의계획서

(on-line class - 학기 내 anytime (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엔 해당 기간 내) & anywhere 수강 가능)

■ 홍석민/ 010-5306-5579/ 신촌 백N302/ ssmhong@yonsei.ac.kr/ [YSCEC](#)

(※ 본 syllabus도 [YSCEC-<Syllabus 게시판>](#)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습니다.)

▸ TA(조교): 현재 N/A: 필요 시, 차후 YSCEC에 공지

■ 면담시간: 현재 계획 無

필요 시, 담당 조교에게 연락하면 본 교수와의 다양한 형태의 면담 가능할 것.

### ■ 수강 대상

- 본 강의는 수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. 단, 유럽 도시 ‘문화공간’을 통해 현대 지구촌 사회의 특징과 그 기원을 진정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, 그리고 본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‘예절’을 갖춘 학생들 모두를 환영합니다!!!

### ■ 수업 목표

도시는, 自然과 달리, 인간이 특정 의도를 갖고 건설한 인위적인 공간이다. 도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기념(혹은 기억)하고 싶은 자신의 삶의 흔적을, 즉 자신의 역사(적 사건이나 현상)를 특정 방식으로 시각화 하여 이를 도시 내의 특정 공간에 배치해왔다. 자신의 역사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곧 특정한 문화적 활동이며, 이런 의미가 부여된 공간은 ‘문화 공간(cultural spaces)’이라 할 것이다. 이런 ‘문화 공간’에는 왕궁, 성(벽), 성당이나 교회, 정부/시 청사 등의 크고 작은 건물, 책을 비롯한 각종 문헌, 그림이나 조각 등의 예술품과 악기, 박물관과 미술관, 기념관, 도서관, 각종 유/무형의 예술작품이 공연되는 극장, 정원이나 공원, 인공 호수, 분수, 동상이나 흉상, 탑, 기둥, 비석, 다리, 종, 문, 각종 조형물, 무덤과 묘지, 광장, 도시 내의 특정 지역/구역이나 거리, 심지어 계획에 의거하여 건설된 도시 전체 등, 인간이 특정 의미를 나타내고자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. 다시 말하면, 도시는 이런 ‘문화 공간’의 공시적 및 통시적 집합체인 셈이다. 이런 ‘문화 공간’이라는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작업은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효율적 방법이 될 것이다.

이런 맥락에서, 본 강의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‘문화 공간’을 갖추고 있는 유럽(/서양)에 주목하여, 유럽(/서양)의 역사 전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의 수도들과 주요 도시들의 ‘문화 공간’을 분석한다. 이번 학기에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중심으로, 주제에 따라 필요한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들을 추가하여 분석할 것이다. 특히 본 강의는 무한정으로 다양하고 그 수가 많은 ‘문화 공간’들 중에서 현대 유럽(/서양)과 지구촌의 주요 긍정적 및 부정적인 특성과 흐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상징하는 ‘문화 공간’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공시적/통시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역사 연구의 대표적인 효용성의 하나는 교훈을 얻는 것이며, 따라서 현대의 형성과 밀접한 ‘문화 공간’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여 미래의 방향타로 삼는다면 이는 바로 그 효용성을 충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. 이것이 본 강의의 관심을 이런 특정 ‘문화 공간’에 집중시키는 이유이다.

본 강의가 초점을 맞춘 수도와 주요 도시들의 ‘문화 공간’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각종 토목.건축물과 그 부속물, 혹은 유.무형의 예술품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, 이런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선 이를 둘러싼 정치, 경제, 사상, 건축, 과학, 음식, 음악,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의 습득과 이의 융합이 필요하다. 따라서 본 강의는 여러 학문 분야의 경계 및 시간적 경계를 넘나드는 공시적/통시적 통섭과 융합에 기초한 다학제적 통찰력의 배양은 물론, 논리적, 분석적, 비판적, 과학적 판단 능력뿐 아니라 역사적 상상력의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다. 나아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현대 지구촌 사회의 주요 흐름 및 특징과 그 과거의 뿌리를 비판적-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안목과 창의적 시각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. 이는 한 지역, 국가,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지도자들이 꼭 갖춰야 할 소양이라 할 것이다.

■ 선수과목

서양사에 관한 배경지식이 많으면 좋겠지만, 필수적이진 않습니다. 동영상과 노트 (및 교재)를 착실히 공부하고 비판적.창의적 사고를 갖추고서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면, 누구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.

■ 주 교재

※ 강의는 다양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, 강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한 권으로 된 교재는 없습니다.  
그러나 **on-line class의 동영상과 노트**를 꼼꼼히 보고, 필요한 경우 아래 책/책들을 읽고 수업에 임한다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저변의 배경지식을 쌓게 될 것입니다.

※ 참고문헌: YSCEC에서도 볼 수 있음

- 차하순. 『새로 쓴 서양사 총론 I, II』 (탐구당, 2010 (2000))
- 이영석 외. 『도시는 역사다』(서해문집, 2011)
- 조 지무쇼 편저. 최미숙 역. 『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』 (다산북스, 2020)
- 송하엽. 『랜드마크: 도시들 경쟁하다: 수직에서 수평으로, 랜드마크의 탄생과 진화』(효형, 2014)
- 윤재희 역. 『세계 도시사』(세진사, 2003)
- 정승현 외 공역. 『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』 (개정판) (아카넷, 2019)
- 미국 PBS. <Commanding Heights> (KBS Media, 2009) -- DVD
- 에이미 추아. 이순희 역, 『제국의 미래』(비아북, 2008)

+)

- 정태남. 『이탈리아 도시기행: 역사, 건축, 예술, 음악이 있는 상쾌한 이탈리아 문화산책』(21세기북스, 2012)
- 정태남. 『로마산책: 매력과 마력의 도시』(마로니에북스, 2008)
- 김상근. 『천재들의 도시 피렌체』(21세기북스, 2010)
- 손세관. 『베네치아: 동서가 공존하는 바다의 도시』(열화당, 2007)
- 김창민. 『스페인 문화 순례: 세비야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』(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, 2013)

■ 강의 운영 방식 = ◆ Online Class ◆

- 매주 **평균 30분** 분량, 3개의 **동영상 강의 시청 + 자기 주도 학습**  
(예: 노트에 제공된 **문화공간들의 Google map상 위치와 현대사적 의미** 찾아보기)  
+ **퀴즈**
- 수업시간 전에 YSCEC-<노트 & 키워드>를 통해 **노트 w/ (목차)와 주요 단어들(key words)**이 제공될 것임.

■ 평가방법: Total 100점

- 본 syllabus와 함께 제공되는 별도의 '평가기준표' 참조

■ 퀴즈 유형 및 풀이 방법

- **퀴즈** — 예: 빈 ( ) 채우기
- : 정해진 시간(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예정)에 & 제한된 시간(10~20분 내외) 내에 모두 풀어야 함!!!
- : 학기 시작에 맞춰 YSCEC에 제공될  
'퀴즈에 대한 설명 동영상' & '동영상 시청 스케줄과 기한+Quiz 일정표' 참조

▣ 주의 사항 → No Appeal !!!

- ▲ 성적 정정기간 중에, 어떤 이유에서든 성적 nego 시도 시, 큰 불이익 줄 것 !!!
- ▲ 녹음, 녹화, 사진 촬영: 절대 불허!!! (지적 재산권.초상권 침해 etc.)
- ▲ 수강 변경 후 YSCEC-<출석번호 게시판>에 부여되는 출석번호를 필히 암기할 것.
  - 수업 운영 중에 여러 번에 걸쳐 중요하게 사용될 것입니다.
- ▲ YSCEC의 적극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,  
YSCEC 이용 시, 정해진 용도와 목적으로 할당된 방/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▲ 출/결 체크는 → 수업 참여도 = 시청 진도율로 체크
  - 모든 동영상은 영상에 기록된 분/초 끝까지 다 시청할 것
  - 그렇지 않을 경우,  
시청진도율이 100%가 아닌,
    - 99.7%, 99.8%, 99.9% 등으로 체크 되어,
    - 출석점수 만점을 못 받을 우려 있음!

▣ 주차별 강의 스케줄

- ▶ YSCEC - 동영상 시청 스케줄과 기한 참조